

# '백종원 골목식당' 이 몰고온 착한 변화들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오는 4일부터 4번째 골목인 서울 용산 '신흥시장' 편으로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앞서 이대 앞 '삼거리꽃길', 충무로 '필스트리트', 공덕 '소담길'을 거친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높은 화제성과 꾸준한 시청률에 물러져 있었던 골목상권까지 살려내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 연예인 활약 홍보효과...2배 이상 매출 높은 화제성 등으로 골목상권 살려내

가장 큰 변화는 실질적인 골목상권 매출 상승이다. 제작진에 따르면 백종원의 솔루션을 거친 골목 식당들은 대부분 솔루션 전과 비교해 2배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 방송 직후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3배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식당도 있었다. 자체 분석 결과, 특정 식당 한 두 곳에 집중되는 현상 없이 각 식당별로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이는 그 골목상권의 유동인구를 늘리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변화는 포털과 SNS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골목상권 지역의 연관검색어는 물론 SNS 인기 해시태그에는 골목식당들이 상위권을 차지하며 '백종원 솔루션'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골목상권 부흥에는 '백종원 사단'으로 합류한 연예인들의 활약을 빼놓을 수 없다. 첫 주자로 발탁된 남창희X고재근은 특유의 성실함을 바탕으로 색다른 '연어 포케'를 선보이며 이대 '삼거리꽃길'의 활력소가 되었고, 두 번째 골목 '충무로 필 스트리트'는 돈스파이크X차오루라는 막강 조합으로 거리가 손님들로 들어찼다. 특히, 돈스파이크X차오루는 골라쉬와 슈니첼을 선보이며 음식 완판은 물론, 식당 운영에 있어서도 완벽한 모습으로 백종원을 만족시켰다. 가장 최근에 합류했던 앤디X사유리X허경환X이명훈은 기준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조합으로 공덕 소담길 마스코트가 됐다. 사상 최초 2층 식당을 운영하면서 좌중우돌 에피소드를 만들어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합이 맞춰지며 연

일 '완관 신화'를 이뤄냈다. 이에 제작진은 조만간 연예인 식당 매출 수익금을 관련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

### # 용산 신흥시장 더 강력해졌다

이제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4번째 골목인 용산 '신흥시장' 편으로 돌아온다. 떠오르는 핫 플레이스 '해방촌' 인근에 자리 잡았지만, 전혀 주목받지 못하던 '신흥시장' 부흥을 위해 백종원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더불어 가수 황치열과 배우 남보라가 '백종원 사단'으로 전격 합류해 '신흥시장' 부흥에 나선다. 제작진에 따르면, 이들은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현실남매' 케미로 기존 연예인들과는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이밖에 백종원도 허를 때루며 만큼 역대급 골목 사장님들이 등장해 또 한 번의 화제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2주 만에 돌아오는 백종원의 골목식당 '신흥시장' 편은 4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된다.

### # 매출 2배: 골목상권 살렸다

### # 백종원 사단: 홍보효과 톡톡

## 경쟁 NO '더 댄서', 초심으로 돌아간 댄서들의 이야기



경쟁 없는 댄스 프로그램 '더 댄서'가 출격한다. 내로라하는 아이돌 스타들이 만든 안무는 어떤 모습일까. 케이팝 JTBC4 예능프로그램 'Why Not-더 댄서'(이하 '더 댄서') 제작발표회가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JTBC 사옥에서 진행됐다. 자리에는 김학준 CP를 비롯해 그룹 슈퍼주니어 은혁, 하이리이트 이기광, 사이니 태민이 함께했다. '더 댄서'는 댄스에 일가견이 있는 아이돌 스타들이 댄스의 성지 LA로 떠나 월드클래스 댄서들과 콜라보를 통해 직접 안무를 완성해 나가는 댄스 리얼리티 예능프로그램이다. 기존의 댄스 프로그램은 경쟁 구도를 가지고 있다면 '더 댄서'는

함께 안무를 만드는 과정을 그리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경쟁과 평가의 과정을 배제한 것. 김 CP는 "안무를 만든다는 건 아이들이 가져야 할 숙제는 아닐 수 있다. 은혁 씨가 말했던 것처럼 초심으로 돌아가 아웃하게 춤에 집중하는 멤버들의 모습을 담았다. 압박감을 주지는 않으려고 했다. 댄스가 주는 즐거움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프로그램에는 내로라하는 아이돌 댄서들이 출연한다. 슈퍼주니어를 비롯해 하이리이트, 사이니의 댄스 인원이 풍부하며 화려한 라인업으로 눈길을 끌었다. 김 CP는 "케이팝 댄스 아이돌을 대표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해 캐스팅하게 됐다.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냈는데 다행하게도 세 분 다 응해주셨다"며 "미국 촬영이 힘들었을 텐데도 잘 응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사를 전했다. 리더는 은혁이 맡았다. 그는 2006년 슈퍼주니어로 데뷔해 댄스 멤버

였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들은 활약을 통해 서로의 자극제가 됐다고 이야기했다. 은혁은 "서로 좋아하는 춤 스타일이 달랐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배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가르쳐 주기도 했다"며 "연습할 때 보면 아무래도 표현은 안 해도 경쟁심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런 마음을 일깨워 주는 시간이었다. 서로 많이 배우고 공유했다"고 즐거운 감정을 드러냈다. 태민 또한 "춤에 대한 열정이 식은 시기였다. 다른 것에 관심을 좀 더 주고 있었을 때 프로그램을 함께 하게 됐다. 프로그램을 통해 자극을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했다. 끝으로 그들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당부했다. 심지어 은혁은 '댄스'를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이다. 현역에서 아이돌로 활동하는 분들도 지켜봐 주실 것 같다"며 동료 가수들의 시선을 부탁하기도. 이기광 또한 "우리가 직접 안무가 돼서 해외 아티스트에 세 안무를 쥘까 하는 게 부담이 되기도 했다. 시도한다는 도전정신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얼마나 짓궂게 춤을 만들었는지 보시면 소소하게 재미있지 않을까"라고 시청을 당부했다. '더 댄서'는 오는 5일 저녁 8시 30분 첫 방송될 예정이다.

## '우만기', 라미란표 생활 밀착형 연기



시장을 훤히 알고 있는 송현철에게 점점 마음이 기울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그녀는 송현철(B고창식)와 함께 했던 지난 추억들을 되새겼다. 들어오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혼자 가 된 조연화의 쓸쓸함이 시청자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며 안쓰러움을 자아냈다. 뿐만 아니라 아직 헤쳐지지 못한 남편의 옛 번호로 전화를 걸어 속마음을 털어놓는 장면은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송현철로 인해 자신이 느끼는 혼란과 그럴수록 배가하는 남편에 대한 심정 역시 사무치고 있는 터, 라미란은 이러한 감정을 역으로 키워 담아내며 인방극장을 먹먹하게 했다. 더불어 조연화는 남편의 죽음을 수사 중인 박형사(전석호)와 이중 다음 케미로 유쾌함을 더했다. 직접 수사에 대한 조언까지 건네며 참견하는 그녀의 오지랖이 보는 이들을 웃음 짓게 한 것. 이처럼 라미란은 생활 밀착형 연기로 살아 숨 쉬는 캐릭터를 완성, 시청자들에게 친숙함을 선사하는 동시에 그의 감정에 깊이 이입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있다. 캐릭터의 히로에라를 풍성하게 표현하는 라미란의 입체적인 연기는 '우리가 만난 기적'의 완성도를 높이며 시청자들의 호평을 이끌어내고 있다.

## 트와이스 'TT' 3억 5000만뷰 돌파

걸그룹 트와이스가 새로운 기록을 세내려가고 있다. 2일 유튜브에 따르면 트와이스의 'TT' MV가 3억 5000만뷰를 돌파하며 4억뷰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2016년 10월 24일 0시 유튜브에 공개돼 지난해 12월 22일 한국 여성 아티스트 사상 최초로 3억뷰

를 달성한 데 이어 1일 오후 11시 43분께 3억 5000만뷰를 넘어섰다. 또 지난해 10월30일 오후 6시 발매한 첫 정규 앨범 '트와이스타그램(Twicetagram)'의 타이틀곡 '리아키(Like)' MV는 3월 8일 오전 K팝 걸그룹 사상 최단 기간 2억뷰를 돌파했다. 지난해 8월 치어

업(CHEER UP), 11월 '우아하게(OOH-AHH하게)' MV도 2억뷰를 넘어섰다. 또 데뷔곡 '우아하게(OOH-AHH하게)'부터 '히트 셰이커(Heat Shaker)' MV에 이르기까지 7연속 1억뷰 돌파'를 기록중이며 지난해 9월 공개한 미니 5집 타이틀곡 '왓 이즈 러브?(What is Love?)' MV 역시 2일 오전 9시 기준 7840만뷰를 넘어 8연속 1억뷰 돌파를 노리고 있다.

## 오늘의 순세 2018년 5월 3일 목요일 (음력 3월 18일)

<p><b>▶ 쥐</b> 작은 일인데, 큰일은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마라. 양보하는 미덕이야말로 큰 그릇이 되기 위한 길임을 알아야 한다. 1, 5, 11월생 애정은 적극성을 보이라.</p> <p><b>▶ 돼지</b> 해가 구름 속에 숨기를 반복하니 웃음과 울음이 교차할 수 있겠다. 희망을 품고 힘겨운 매진할 때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 현 시점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면 반드시 평화로운 미래가 펼쳐짐을 알라. 2, 9, 12월생 삼각관계로 고심하겠다. 친구와 의논해야 좋다.</p> <p><b>▶ 호랑이</b> 새로운 만남과 과감한 시도로 몇 갑절 좋은 기분이 되겠다. 과거사에 연연하면 자신을 소신하게 만드니 희망을 품고 출발하라. 사, 비, 7월생은 한꺼번에 큰 욕심을 부리거나 상대를 이해하고 양보하는 자세를 가지면 장애에 더 큰 이익을 얻는다.</p> <p><b>▶ 토끼</b> 현재 추진하는 일은 금전적으로 심적 고통이 크다. 그러나 참고 인내하며 과감히 추진하면 뿌린 만큼 거둔다. 3, 8, 11월생 관한 일에 신경 쓰다 주관적인 자제가 흔들리는 일은 없도록 하라.</p>	<p><b>▶ 용</b> 사방을 둘러봐 할 수 있는 쉬운 일부터 먼저 하라. 그, 모, 흥 성씨 하나만 고집하면 시간이 지체돼 뜻밖의 고민까지 생긴다. 2, 4, 8월생은 희망이 없다 생각하지 마라. 남쪽에서 협조자가 나타나니 뜻한 일을 성취할 수 있다.</p> <p><b>▶ 닭</b> 마음의 번민을 잘 견뎌야 앞으로 좋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사, 7월생 우물쭈물하지 말고 내 위치를 확고히 다지라. 지금은 내 손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자만해서는 안 된다. 2, 5, 7월생 애정은 한곳에 마음을 두고 삶을 개척하라.</p> <p><b>▶ 양</b> 양보하면서 순리대로 처신하라. 지나친 경쟁의식은 서로 피해만 주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만 쌓이게 한다. 4, 5, 11월생 연하나 연상을 사귀면 구설에도 오르고, 이별수도 예상되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p> <p><b>▶ 개</b> 하는 일에 득이 없지만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고, 마음고생 또한 말이 아닌 상태다. 4, 6, 8월생 공직, 기술직, 제조업자는 잘 안 되면 변동하지 말고 동업을 생각하라. 배우자로 인해 마음고생하겠다.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p>	<p><b>▶ 원숭이</b> 지금은 미래를 준비하는 단계라 생각하고 모든 힘을 한곳에 집중하라. 액세서리, 서비스, 음식업자는 길이 보인다. 자신감을 갖고 인내해야 한다. 그, 비, 흥 성씨 자기관리에 신경 쓰라.</p> <p><b>▶ 닭</b> 비밀이 있으면 일찍 당사자에게 털어놓고 의논하는 것이 내게 이롭다. 마음이 편해야 변화한다. 1, 3, 6월생은 가정사로 갈등이 크니 매사 조심하라. 불필요한 일에 시간, 노력 낭비하지 말고 자기 일에 전념해야 한다.</p> <p><b>▶ 돼지</b> 이제까지 잘 견뎌다. 포기하지 말고 지금 하는 그대로 밀고 나아가라. 3, 7, 10월생 자기 사업을 버리지 말고 월급쟁이 생활에 만족해야 한다. 다만 투기업종은 잠시 중단하는 것이 좋다. 1, 6, 7월생 하나 더 잡으려다 가진 것마저 잃는다.</p> <p><b>▶ 개</b>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순간순간 닥치고 있다. 흐름을 잘 파악해 결정하라. 순간의 선택이 길흉을 만든다. 부부 사이는 틀어진 상태다. 애정이 식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라. 7, 8, 9월생 검은색과 흰색은 나를 나타내는 색답게 길하라.</p>
--	--	--